

		2018. 3. 27.(화)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		
상하수도본부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상하수도본부장	강창석	750-7770
		하수도부장	이학승	750-7940
		하수계획과장	강학찬	750-795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!!

-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 -

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강창석)는

- 최근 도내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계획하수량을 재 산정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(변경)(안)을 2018. 3. 15.(목) 환경부에 승인신청 하였다고 밝혔다.

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을 보면,

- 2016. 9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급격한 인구유입, 관광객 증가, 물사용량 등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장래 계획인구 등 각종 계획지표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.

◆ 도시기본계획 상 장래 계획인구 : '20년) 680천명, '25년) 780천명

- 또한, 상주인구 및 관광객 증가,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하수처리시설 적정용량을 초과 하고 있어 관광객 2천만시대 대비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태이고, 기존 노후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개량요구, 악취 및 혐오시설이미지 등으로 인한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게 되었다.

□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,

○ 우선 주요 계획지표가 변경되었다.

◆ 계획인구는 당초 계획보다 8만명이 증가된 86만명으로 계획하였고,

(당초) '20년) 690천명 ⇨ '25년) 730천명 ⇨ '30년) 760천명 ⇨ '35년) 780천명

(변경) '20년) 730천명 ⇨ '25년) 800천명 ⇨ '30년) 830천명 ⇨ '35년) 860천명

◆ 관광객 증가율 고려 향후 증가 관광인구에 대한 관광오수량을 반영하였다.

(계획) '20년) 158천명 ⇨ '25년) 250천명 ⇨ '30년) 280천명 ⇨ '35년) 310천명/일

○ 현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총 시설용량 240,000m³/일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,

- 단기계획으로 제주, 서부, 동부, 보목, 색달, 대정, 남원 등 7개 하수처리장을 2020년까지 제주(도두)처리장 1단계 증설 45,000m³/일을 포함한 119,000톤을 증설하여 359,000m³/일의 하수를 처리하고

- 장기계획으로 203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 529,000m³/일의 하수 처리능력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◆ 시설용량 : '20년) 359,000 → '25년) 493,000 → '35년) 529,000m³/일

○ 또한, 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」가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와 향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폐쇄시기 도래 등을 감안하여 하수처리 구역 12.25km²을 확대(189.8km² → 202.05km²)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금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, 오·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16. 9월에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 대비 1조 1,767억원(약 59%)이 증가된 2조 8,5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.

□ 2018. 3. 15.일자 환경부에 신청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,

-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와 도에서는 관련기관에 기본계획의 변경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 계획대로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강창석)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조기에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정상화를 통해 도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속발전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여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.

